

순조로운 출발... 이번 시즌 주제는 파멸



4일 19.5%의 시청률로 시즌3를 시작한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 연합뉴스

SBS TV 금토극 '펜트하우스 3' 첫 회 19.5% 기록 김순옥 작가 "개연성 부족 인정... 결말은 짜릿하게"

“우리가 지금 사는 집이 가장 행복하구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머리 아파서 펜트하우스에서 하루도 못 살 거 같거든요.”

종착지를 향해 한창 달려가는 SBS TV 금토극 '펜트하우스'의 김순옥 작가가 시청자들의 큰 지지에 힘입어 입을 열었다.

그는 시작할 때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드라마를 끝까지 완주할 수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열렬했다"고 했다. '펜트하우스'는 시즌2 마지막 회에서 30% 돌파를 목전에 뒀으며, 시즌3 첫 회 역시 19.5%를 기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김 작가는 시즌1과 2, 그리고 3의 메시지도 직접 설명했다.

“시즌1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이었고, 시즌2는 '죄에 대한 인과응보'가 포인트였죠. '어떤 인간의 욕망도 충족되지 않는다. 인간은 끝없이 더 높은 곳으로 오르려 하기 때문이다'라는 작의(작품

의도)처럼, 한 칸을 가진 사람이든 아흔아홉 칸을 가진 사람이든,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결말 때문에 불행하고 그 불행함 때문에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즌3의 주제는 파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온 세상이 다 무너져버리는. 그러나 그 끔찍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하늘과 땅이 열리고, 무너진 돌 틈 사이에서 새싹이 태어나겠죠.”

'펜트하우스'는 예상치 못한 전개와 속 시원한 응징 등으로 흥행에 성공했지만, 일각에서는 개연성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기도 한다.

김 작가는 이에 대해서도 시원하게 인정하면서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을 향해 “(시즌3 방영까지) 두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여러분이 추리한 모든 것이 맞을 수도, 하나도 안 맞을지도 모르지만, 그 결말이 여러분을 잠시라도 짜릿하게 해주길 소망한다”고 인사했다.



공포영화 '컨저링3'의 한 장면. 연합뉴스

공포영화 '컨저링3' 박스오피스 정상

29만4000여명으로 1위 올라

공포영화 '컨저링3:악마가 시켰다'가 개봉 첫 주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7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컨저링3'는 지난 주말 사흘(4~6일) 동안 29만4000여명(매출액 점유율 37.6%)의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퇴마사인 워렌 부부의 파일에 등장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1981년 미국 코네티컷주 브룩필드에서 19세 청년이 숲에 취해 집주인을 여러 차례 공격해 살해한 뒤 악령에 쫓겨 벌인 일이라는 주장을 폈던 재판을 소재로 했다.

에마 스톤과 에마 톰슨의 악녀 대결

이 흥미로운 디즈니 실사 영화 '크루엘라'가 24만7000여명(31%)으로 2위를 유지했다. 지난달 26일 개봉 이후 누적 관객은 66만4000여명을 기록했다.

2주 연속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에 지켰던 '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가 두 계단 내려서 3위다. 17만3000여명(21.3%)의 관객을 더하며 누적 관객 204만9000여명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최고 흥행작으로 장기 상영 중인 '극장판 귀멸의 칼날:무한열차편' (209만명)과 5만명 차이로, '분노의 질주'가 곧 올해 최고 흥행작으로 올라설 전망이다.

'분노의 질주' 시리즈의 9번째 편인 이번 영화의 흥행에 힘입어 1~4편이 연속 재개봉한다. 1편은 오는 16일 4DX로 선보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다음엔 밝은 모습 보여주고파”

OCN 금토극 다크홀 중영 동림역 오유진 소감 밝혀

전날 종영한 OCN 금토 드라마 '다크홀'에서 한동림 역을 맡은 배우 오유진(22·사진)을 최근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 빌딩에서 만났다.

'다크홀'은 싱크홀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를 마시고 생겨난 변종 인간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그리는 처절한 생존기를 그려낸 작품이다.

전작 tvN '여신강림'의 주혜민에 이어 '다크홀'의 한동림까지 학교폭력 피해자 역을 잇달아 맡아 온 그는 “단순하게 연기만으로 접근하다 보면 실제 피해자분들께 이상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표현했다”며 배우로서 느꼈던 책임감을 밝혔다.

그는 갖은 불행을 다 겪은 뒤 결국 괴물의 숙주가 되어버린 동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아쉽고 안타깝다”면서도 “괴물의 숙주로 나쁜 짓을 많

이 했으니 옳은 결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크홀'을 통해 처음으로 비중 있는 역할을 맡게 됐다는 오유진은 “긴 호흡으로 가져갔던 첫 작품이라 설පහ한 마음이 크다”며 “마지막 촬영을 끝내고 나서도, 집에 돌아와서도 눈물이 날 정도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소중한 작품”이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이번 작품을 통해 만난 김옥빈에 대해선 “대선배님 느낌이라 호흡을 잘 따라가지 못할까 걱정이 많이 됐는데 처음부터 편하게 대해주고 긴장을 풀어줘서 촬영에 들어가자마자 걱정이 다 사라졌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다음 작품에서는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 역할을 맡아 교복을 벗어보고 싶다는 그는 데뷔 3년 차 신인으로서의 당당한 포부도 밝혔다.

“꿈을 많이 높게 잡았어요. (웃음) 칸 영화제에 가는 게 최종적인 목표예요. 가능하다면 여우주연상까지 꼭 받고 싶습니다.” 연합뉴스



'군백기' 마무리... 2PM 완전체 귀환

28일 새 앨범 '머스트' 발매

2008년 데뷔한 2PM은 '하트비트', '10점 만점에 10점', '어게인&어게인', '니가 밎다' 등의 곡으로 인기를 끌었다. 최근에는 2015년 발표한 정규 5집 타이틀곡 '우리집' 무대 영상이 재조명되며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올해 3월 준호가 마지막으로 전역하면서 '군백기'를 마무리하고 컴백 준비를 해왔다.

JYP엔터테인먼트는 "하트비트(팬덤명)의 오랜 기다림을 헛되게 하지 않을 음악들과 멤버들의 열정으로 웰리티 최상의 콘텐츠를 선사하겠다는 각오"라고 전했다.

2PM 이외에도 사이니와 하이라이트 등 2세대 보이그룹들이 '군백기'를 마치고 잇따라 돌아와 성공적으로 컴백 활동을 치른 바 있다. 연합뉴스

2008년 데뷔한 2PM은 '하트비트', '10점 만점에 10점', '어게인&어게인', '니가 밎다' 등의 곡으로 인기를 끌었다. 최근에는 2015년 발표한 정규 5집 타이틀곡 '우리집' 무대 영상이 재조명되며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올해 3월 준호가 마지막으로 전역하면서 '군백기'를 마무리하고 컴백 준비를 해왔다.

JYP엔터테인먼트는 "하트비트(팬덤명)의 오랜 기다림을 헛되게 하지 않을 음악들과 멤버들의 열정으로 웰리티 최상의 콘텐츠를 선사하겠다는 각오"라고 전했다.

2PM 이외에도 사이니와 하이라이트 등 2세대 보이그룹들이 '군백기'를 마치고 잇따라 돌아와 성공적으로 컴백 활동을 치른 바 있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재) 11:55 슈퍼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20 KBS 아침 뉴스타임 8:00 KBS 아침 뉴스타임 8: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부 9: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3부 10:00 속아도 꿈결(재) 10:40 지구촌 뉴스 11:00 오월의 청춘(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8:50 밥이 되어라(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불행한 신선놀음 스페셜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아침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아모르파티 9:10 좋은 아침 10:00 중계방송 국인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11:4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7:45 숲속 배달부 빌빙 8:00 덩동생 유치원 8:30 황동영 슈퍼퀵스 9:40 우리집 유치원 12:00 EBS 글로벌 뉴스 13:00 일단 해봐요 14:10 EBS 다큐프라임 15:15 클러스 e 16:00 마사와 곰 16:30 덩동생 유치원 18:00 생방송 밤과 후 토크 19:35 자이언트 펭TV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3:00 KBS 네트워킹 특선 세상다만사 13:50 한국의 인류유산 13:55 운동맛집 5분 레시피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14:30 이슈 픽 캠페 스페셜 15:00 슈퍼 15:05 시사기획 창(재) 16:00 시사간담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2:10 생생정보 스페셜 12:50 라디오스타(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보토스 패밀리(재) 15:30 TV 유치원 16:00 트레킹로드 세상을 걷다 스페셜 16:50 TV는 사랑을 싣고(재) 17: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크리켓팅 12:50 뽀뽀보 친구친구 13:20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15:10 뉴스24 15:20 2시 뉴스 외전 15:20 이 맛에 산다 16:00 기분 좋은 날(재) 17:00 5 MBC 뉴스 17:1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2:10 SBS 12뉴스 12:30 JIBS 뉴스 12:50 리액션소년단(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내모세(재)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뉴스 17:50 행복설계 알짜배기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다경의 아침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그대랑가게 김석훈입니다 12:00 CBS 뉴스 12:05 천왕이 있는 숲길 13:30 생방송 생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김종대의 뉴스업 21:35 라디오간담 22:05 원광경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40 보물섬 20:30 오월의 청춘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2:00 역사재발 그날 22:50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미스 몬테크리스토 20:30 노래가 좋아 21:30 오월의 청춘 22:10 오월의 청춘 22:40 옥탑방의 문제아들 1부 23:35 옥탑방의 문제아들 2부	18:10 테마기행 길 19:10 밥이 되어라 19:50 MBC 뉴스데스크 1부 20:45 MBC 뉴스데스크 2부 21:20 아무튼 출근 1부 22:00 아무튼 출근 2부 22:40 PD수첩 23:35 100본토론	18:50 생방송 투데이 1부 19:20 생방송 투데이 2부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순간포화 세상에 이면일기 1부 21:30 순간포화 세상에 이면일기 2부 22:00 리액션소년단 1부 22:35 리액션소년단 2부 23:05 리액션소년단 3부 23:35 라우드(재)	KCTV 7:00 KCTV 뉴스 8:30 취미로 먹고 산다 9:00 KCTV 뉴스 9:30 웰린지 퀴즈쇼 10:30 불복제인 IN 제주 12:30 방송관련전문대회사상식 13:30 미나리요, 돌이서 14:20 UHD 제주산책 15:00 KCTV 뉴스 16:10 웰린지 퀴즈쇼 17:00 KCTV 뉴스 18:00 인터뷰 제주공간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오늘의 운세 8월

김종상 지단(호리)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안포교수 (010-5233-6136)

36년 즐거움 행복의 마음으로 자기최면을 걸자. 48년 분별력이 필요하니 생각을 신중하게. 경계망은 비웃음 대상이 된다. 60년 시비, 구설이 오거나 소송권이 오니 매사 신중하는 게 좋다. 72년 화복이 필요하고 대인관계를 중시하면 신뢰를 얻는다. 84년 좋은 인연 만물기나 모임에 합류하면 좋다.

37년 하는 일에 변동이 오거나 정리하려고 한다. 49년 한가지 특기나 취미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 61년 직장이나 자식문제도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 받는다. 73년 돈 문제로 다툼이 있으며 손재수가 있으니 자금관리 철저. 85년 열심히 노력한 댓가가 있다.

38년 병환의 회복이 더디다. 안전사고 유의. 50년 금전적인 문제로 시비나 다툼이 오거나 금전거래 시 자체나 보류. 62년 휴직자는 일이 생기고, 활동인은 임무가 가중돼 피로가 누적. 74년 해결되지 않던 일이나 주변의 도움으로 일이 풀려 나간다. 86년 내 의지대로 일을 추진해가면 일이 풀린다.

39년 마음 먹은대로 일이 추진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 게 좋다. 51년 결단을 내리고 때를 기다리면 소식이 온다. 63년 약속이나 갈 곳이 많다. 75년 사소한 언쟁이 사이를 갈라 놓으니 미혼자는 이헤타산을 논하지 마라. 87년 협조가 있어 일이 성사되고 결과가 있다. 은혜에 반드시 보답하라.

40년 친구나 주위와 음식이나 운동을 함께 한다. 52년 물질적 문제, 정신적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직업으로 갈등한다. 64년 자녀 문제로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한다.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 76년 신령이 예민하거나 시력저하 또는 두통이 오니 무리하지 말 것. 88년 일이 필요할 때 주변에 요청하면 가능하다.

41년 사소한 일에 참견 시 큰 다툼이 되니 나서거나 간섭하지 마라. 53년 날 앞에 너무 나서면 시기 마음이 사게 되며 때론 적이 되기도 한다. 65년 변화가 필요하면서도 막상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한다. 77년 약속이 생기고 모임이나 친목에 나간다. 89년 외출이나 타 지역으로 여행이나 출장 갈 일이 생긴다.

42년 작은 일이라도 작심하고 실천하면 그 결과가 좋다. 54년 확실할 수 없는 일은 매달리지 마라. 66년 가정 안에서 불화, 논쟁은 상처가 오래가니 대항하지 마라. 78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밀고 나가려는 집념이 필요하다. 90년 문서 관련 소식과 이익이 있다. 건강은 유의.

43년 전문직 업은 활기가 오니 직업 경력 필요. 55년 자녀 중 경사가 있거나 반가운 소식을 접한다. 67년 열정이나 의욕이 강한 날. 활동성 있는 일은 이익이 증가된다. 79년 상사와의 마찰을 피하고 동료 간 관계 개선 유지할 것. 91년 시비 구설이 오니 나서는 일은 신중하게 행동하라.

44년 일의 성과는 만족을 못하나 구사일생의 기분으로 새 출발. 56년 밤낮없이 일한 성과가 있으니 피로함을 잊는다. 68년 가정에서는 화목해도 친척 또는 집안에 근심이 생긴다. 80년 직업을 갖기 위한 전문 분야에 도전해 미래 준비를 하라. 92년 흥겨운 웃소리가 은은하다.

45년 문서로 인한 일로 신경을 쓰게 되거나 자녀 일로 걱정이 생긴다. 57년 재물이 들어오고 일거리가 생기기 시작. 69년 문제 해결이 요구. 69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도 하고 일이 호전된다. 81년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자신을 한 번쯤 점검함도 필요. 93년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46년 뜻하는 바를 이루니 참으로 기쁨이 있다. 58년 열정이 이익이 있기도 하지만 변화를 주려는 사람도 많다. 70년 자격 또는 면허를 갖고 하는 일은 기쁨이 배가 된다. 82년 직업인은 변동·변화를 추구하려 하며 마음에 동요가 생긴다. 94년 여기저기에 발려있는 일들이 내 맘에 안드니 잔소리가 커질 수 있다.

47년 활동력이 왕성하고 외부영업도 분주하다. 59년 한가지 직업에서 성공하니 전문적이 좋다. 71년 수입도 있으나 지출도 만만치 않다. 교육비 증가가 생긴다. 83년 돈 문제로 고민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 93년 미흡. 95년 아랫사람의 배려가 있지만 금전적 문제는 아직 해소되지 않는다.